

금강경 해독 열쇠 우주서 찾다

이시우 박사 '천문학자가 풀어낸 금강경의 비밀' 펴내



“<금강경>은 인간뿐만 아니라 별을 포함한 우주 내 만유(萬有)를 위한 으뜸의 경전입니다.”

그동안 <천문학자와 별의 대화>(종이겨울) 등의 책을 통해 '불교와 천문학의 만남'을 시도해 온 이시우(66) 박사가 이번엔 천문학자의 눈으로 <금강경>의 비밀을 밝혀내는 <천문학자가 풀어낸 금강경의 비밀>을 펴냈다.

우리나라 천문학자 1세대라 할 수 있는 이 박사는 서울대 천문학과와 동 대학원에서 이론물리학을 공부한 후 미국 예슬리안 대학에서 석사과정을, 호주 국립대학교에서 관측천문학 박사과정을 졸업했다. 경북대와 서울대 교수를 지냈으며 현재 한국과학기술원 한림원 정회원으로서 활동하며 집필에 전념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은이가 밝혀낸 '금강경의 비밀'은 무엇일까?

지은이는 “지금까지의 <금강경> 해설은 경에 나오는 자구(字句) 해석에 치중하거나 수보리와 부처님의 문답을 해석하는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금강경>의 제1분의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한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고독원에 계시사 대비구중(大比丘衆) 천이백오십 인과 더불어 함께 하셨습니다”라는 구절에 주목한다. 이 구절에서 보듯 <금강경>은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대중 집단의 차원에서 일어나는 연기사상을 근본으로 삼고 있는 “대중에 의한 대중을 위한 대중의 경전”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은이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금강경>의 가르침이 인간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주 만유에 적용되는 범임을 밝히려고 한다.

“오늘날 진행되고 있는 지구의 황폐화는 자연과 인간 사이의 긴밀한 연기관계를 망각하고, 범우주적인 불법의 깊고 넓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온 결과입니다. 불법은 생명체와 무생명체를 두루 포함한 우주 만유를 위한 것이지 결코 인간 중심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책은 각 분절마다 한역 원본과 이를 우리말로 번역한 '국역', 지은이의 해설을 담은 '신강(新講)', 각 분절의 의미를 자세히 풀어낸 '해설'로 이루어져 있다. 각 장의 끝에서는 '별의 세계'라는 코너를 두어 경의 가르침과 유사한 천문학의 지식을 전한다. 지은이의 전자 <천문학자와 별의 대화>를 읽은 독자라면 '별의 세계'에서 전하는 천문학과 불교의 유사성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금강경>의 가르침에서 우주 법계의 질서를 읽어내려는 그의 노력은 자신이 펴낸 시집 <종마대기>의 한 구절인 “눈에 보이지 않으니 허공이 나/ 만유가 들어 있으니/ 빈 것은 아니로다/ 이 속에서 만물은 모였다가 흩어지며/ 또 흩어졌다가 모이면서/ 생멸을 이어 가고/ 우주를 밝히는/ 불법이 세워진다”를 떠올리게 한다.

“만유의 보편성과 평등성을 근본으로 하고 중도 사상과 선(禪)이 강조되는 불법이 바로 <금강경>에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법은 개인이 아닌 대중의 집단, 더 나아가 우주의 법계에서 더 잘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 경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파니사, 1만3천원

여수령 기자 snopy@buddhapia.com



이시우 박사는 “<금강경>의 가르침은 인간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주만유에 적용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중심이라고 믿었던 게 어느날...



불교방송의 '차 한잔의 선율' 프로듀서를 맡고 있는 문태준(34·사진) 씨가 두 번째 시집 <맨발>을 펴냈다. 표제작 '맨발'은 전문가 115명이 지난해 문예지에 발표된 시 가운데 가장 좋은 작품으로 선정한 시이기도 하다.

이번 시집에서 시인은 존재론적인 문제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 특히 3부에 실린 20여 편의 시는 모든 사물이 변화하며 결국은 소멸할 갈 수 밖에 없다는 사실과 그 변화의 과정을 끊임없이 관찰해가는 시인의 모습을 보여준다.

시 '중심이라고 믿었던 게 어느날'에서는 시인의 이러한 탐구의 한 경지를 엿볼 수 있다. 시인은 봄나무에 “저 수많은 작고 어린 손들” 하나하나가 중심인 것처럼, 인간의 그리움도 “누구 하나를 그리워하는 그리움이 아닌지 모른다”고 고백하고 있다. 이 같은 깨달음은 “나 아닌 것. 그러면서 동시에 나인 것들을 잘 삼키며 살아야겠다”는 ‘시인의 말’과도 그 맥을 같이 한다.

이와 함께 “물을 달여 햇지를 풀이다”가 “마르고 뒤를 린 찻잎들이 차나무의 햇으로 막 피어나는” 모습을 보며 다른 사람이나 사물을 만났을 때 그들의 “간직한 사연”을 들여다 노력하는 시인의 모습도 어렵지 않게 그려볼 수 있다. (‘햇지를 풀이다’ 일부)

맨발 문태준 시집 | 창비 | 6천원



화엄의 그윽한 세계로...

'화엄경현담' 개정판 나와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 소장 최광은은 지난해 발간한 <화엄경현담>의 개정판을 최근 선보였다. 강원의 전통교재이자 <화엄경> 이해의 필수 지침서인 <화엄경현담>은 청량 징관 스님이 화엄의 핵심적인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개본서다.

교육원은 1997년 조계종 역경위원회가 실상사 화엄학원에 역경을 위임해 번역을 시작한 이래 7년여 만인 지난 2003년 <화엄경현담>과 현담의 해설서를 모은 <화엄경현담 주해집>을 각 2권 1집으로 발간했다. 봉은사판 목판본 <화엄경소초해본> 가운데 <현담>에 해당하는 제1권부터 8권까지를 저본으로 삼은 이 책은 그동안 부분적인 번역에 그쳤던 <화엄경현담>을 처음으로 완역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또한 이 책은

전통적인 역경 방식에 따라 여러 대중이 함께 읽고 토론하며 번역했다는 데서도 그 특징을 찾을 수 있다. 화엄학림 학장이었던 연관 스님과 도법 스님의 지도 아래 1~3기 화엄학림 졸업생 스님들이 초역과 판본 대조, 교정 등을 나누어 맡아 번역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발간된 번역본은 적은 발매부수로 인해 급세 절판됐고 이번에 화엄학림 강사 해강 스님이 오탈자와 번역의 오류를 바로 잡아 새롭게 펴내게 됐다. 화강 스님은 “지난해 예산 확보 상의 어려움으로 한정된 부수로 발간할 수밖에 없었던 <화엄경현담>과 <주해집>을 화엄학림 번역대중 스님들과 승가대학 강사 스님의 의견에 따라 오탈자와 오류를 바로 잡아 다시 펴내게 됐다”며 “이 책을 통해 화엄의 그윽한 세계를 맛볼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편집 후기를 밝혔다.

대한불교 조계종 교육원 역음, 조계종출판사, 14만원 (02)2011-1880

집착 버리니 불국토 세상



그대, 마음의 고향을 보았는가
현해 스님 지음 | 이리야침 | 1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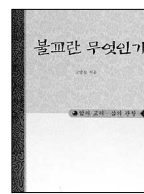
“슬픔과 기쁨, 좋음과 나쁨의 감정은 잠시 스치는 바람과 같아서 '마음'이라는 나무의 잔가지들 조금 흔들리게 할뿐, 마음의 깊은 뿌리까지 흔들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집착을 버리고 무상함을 깨닫는 것이 바로 불국토의 문을 여는 황금열쇠를 얻는 길입니다.”

동국대 이사장 현해 스님(월정사 회주)이 첫 법문집을 펴냈다. 월정사 주지 소임을 맡은 동안 각종 법회에서 행한 법문과 격월간지 <오대법보>에 기고했던 법문을 가려 모았다.

전도사를 지냈던 목심한 기독교인이었던 스님이 불가에 귀의하게 된 사연과 월정사외의 인연, 수행담을 엿볼 수 있다.

스님을 법문을 통해 “부처는 바로 네 마음 속에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끊임 없이 수행에 매진할 것을 당부한다.

'삶과 삶' 소통의 길 찾기



불교란 무엇인가
고영섭 지음 | 정우서적 | 1만원

동국대 고영섭 교수가 <불교신문>에 연재한 글을 묶은 불교 해설서 <불교란 무엇인가>를 출간했다.

“삶의 교리 삶의 관찰”이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에서 지은이는 ‘삶’과 ‘삶’의 기호를 통해 불교를 읽어내고 있다. 지은이는 “삶과 삶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삶에 대한 관찰과 삶에 대한 관찰을 통해 두 기호의 소통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이는 곧 불교의 지향이 삶과 삶이 하나가 되는 것, 즉 ‘삶의 해방’과 ‘삶의 해탈’에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책은 한 주에 한 가지씩 불교의 주요 교리를 배워 나가는 것을 1년(52주) 동안 계속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지은이는 “형성된 것은 모두 변화한다” “수행의 준비단계” 등의 주제를 이야기 하듯 쉽게 설명함으로써 ‘불교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한다.

한가닥 거미줄에 건 욕심



거미줄
아쿠타가와 류노스케 글 | 후지자와 히데유키 그림
길지연 옮김 | 미래M&B | 9천원

근대 일본 문학을 대표하는 천재작가로 일컬어지는 아쿠타가와 류노스케의 동화 <거미줄>이 번역되어 나왔다.

책에 담긴 이야기는 단순하다. 지옥에서 절망에 빠져있는 칸다타를 본 부처님은 생전에 거미를 살려준 적이 있는 칸다타를 지옥에서 꺼내주려 한다. 바로 거미줄 한 가닥을 지옥으로 내려 보내 칸다타를 극락으로 갈 수 있게 한 것이다. 하지만 칸다타는 자기만 살겠다는 욕심을 부리다 다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다. 이 광경을 지켜본 부처님의 얼굴엔 슬픔이 어렸다.

이 책은 짧은 이야기와 절제된 문장, 부처님과 칸다타의 다양한 얼굴 표정을 담고 있는 그림을 통해 불교의 교리를 쉽게 전달한다.

금주의 베스트북 10

책방 역시아문집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오제부지	한 경 해	반디미디어
2	홀로 사는 즐거움	법정 스님	샘터
3	텐진빠모의 마음공부	텐진 빠모	열림원
4	마음 부처가 사는 나라	청화 스님	이리야침
5	불교의 수행법과 나의 체험	우봉 스님	효림
6	중론 논리로부터의 해탈...	김 성 철	불교시대사
7	달라이라마의 행복론	달라이라마	김영사
8	선광 가는 길	정 찬 주	열림원
9	하룻밤에 읽는 불교	소운 스님	랜달하우스출판
10	불교란 무엇인가	고 영 섭	정우서적

도서 안내: (02)737-0695

바로보인 환단고기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을 파헤치다!
웅장한 우리의 고대사와 과학도 밝혀주 못하는
우주탄생의 비밀을 밝혀주는 환단고기.
진장대선사의 인가제자인 대원문재원 선사님
께서 명안중사의 인복으로 바로보았다.

☎ 02-522-0122
www.zenparadise.com

천하제일의 운명의 등대 천신의 안내서



육경신을 통한 저자 74세

八卦秘傳
팔괘비전

閱易神書

增補版
증보판

열역신서

天醫仙道 太宗仙師 楠宮 金永生 編著

제1편 운명의 예언

人生은 배우
운명은 각본
생활은 연출

당신의 출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시시각각의 변화 양상이 수록되어 있다.
어떠한 난관에 처해도 대처할 수 있는
행동 처신 방향을 정확히 설파해
놓았다. 그래서 神書이다.

저자는 이 지구상에 인구가 70억이 될 때 원인 모를 질병이 인명을 휩쓸고 갈 터인데, 천의선도를 전수시켜 인명을 구하고 구천에 방황하다 후손의 몸에 빙의되어 사육편정을 조성하는 영혼에게 사면령을 내려 연화장계로 보내라는 천명을 받고 전 인류에게 알리기 위해 팔괘비전 열역신서 증보판을 낸다. 미구에 닥칠 대연서다.

제2편 四象醫學 八象分類秘法

太陽人 I, II型
太陰人 I, II型
少陽人 I, II型
少陰人 I, II型

사상의학의 숙원인 팔상분류법을
완성공개.
체질에 맞는 이로운 식품과
해로운 식품을 분류했다.
같은 체질이라도 열 체질과
한 체질이 있고 장부가 다르기에
보사법을 수록해 놓았다.

제3편 生老病死와 사후영혼의 실상을 밝혔다

업장을 풀고
수명을 뛰어 넘어라

건강을 원하거든 행복을 원하거든 천문을 열리라.
평생희비 50만원을 20만원에 천문을 열어드립니다.
천문이 열리면 생명의 에너지가 정수리를 통하여
몸속으로 유입되면서 손과 손사이에 자석의 밀고
당기는 것 같은 자장을 느끼며 자연의 신비에 감탄
하는 순간 빙의된 조상신은 생명의 에너지를 보급
받고 천상 신명계로 떠가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몸
과 마음이 거뜨해지고 집안이 편안해지며 하시는 일
이 서서히 잘 풀려갑니다. 건강과 행복을 찾는 천상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책값 30,000원
직접 오셔서 책을 구입하는 분에게는 운명상담은
물론 8상체질 분류도 무료로 해 드립니다.

주문 ☎ : 02)2216-6278 HP : 011-9803-4600
계좌번호 : 하나은행 382-810082-33207 김영생